

蘇青의 《結婚十年》小考

申振浩*

◁목 차▷

- I. 머리말
 - II. 蘇青과 《結婚十年》
 - III. 남아선호사상과 전쟁의 야만성
 - IV. 결혼과 관련된 전통 풍속
 - 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현대문학 작가 가운데 1940년대 上海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는 작가가 바로 蘇青과 張愛玲이다. 그 중에서 張愛玲은 중국 현대문학사의 발굴과 복원 차원에서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1940년대 上海 문단에서 그녀와 더불어 거론되던 蘇青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녀가 활동했던 시공간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上海는 1843년 개항한 이후로 세계 각지로부터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으로 떠올랐다. 1870년대에는 중국에서 상점이 가장 많은 변화한 시장이 되었고, 사이다, 양주 등의 이른바 洋貨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계지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상수도, 전화, 전등, 전보 등의 말 그대로 모던의 상징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화려한 발전의 길을 치달을 것만 같았던 上海의 현실은 1932년과 1941년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연이은 침공으로 말미암아 급전직하하는 운명을 겪게

* 漢陽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된다. 특히 1941년의 태평양 전쟁 발발로 말미암아 上海 조계지역은 일제에 의해 점령당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문학활동 역시 일제에 부역하거나 침묵하는 것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말아, 역사적으로 이 시기 上海에서 활동한 작가와 작품은 가치절하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즉, 1940년대 上海는 일본에게 점령당한 지역이었고, 피점령지역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 아니다. 이른바 피점령지역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40년대 중국 문단의 최대 화두는 ‘抗戰’이었다. 따라서 작가들의 모든 역량은 항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졌고,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영웅에 대한 찬가가 문학의 주류로 대접받았다. 반면에 蘇靑은 좀 다른 길을 걸었다. 蘇靑은 당시 자신이 처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나는 무슨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소리높여 외치지 않았다. 헌병대에 끌려가 괴로운 형벌을 당하기 무서웠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나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내 문제가 문장을 파느냐 팔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판 문장이 나라와 국민과 나라에 해로우냐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쌀판매상이 쌀을 팔고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끄는 것처럼 만약 나라가 함락지구의 인민들도 목숨을 연명해 나갈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나도 이렇게 목숨을 연명한 것이라 마음에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¹⁾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쓴 문장이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살아남고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蘇靑의 작품이 문학사에서 긍정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평론계에서의 그녀에 대한 평가 또한 張愛玲의

1) 我沒有高喊打倒什麼帝國主義，那是我怕進憲兵隊受苦刑，而且即使無甚危險，我也向來不大高興喊口號的。我以為我的問題不在賣文不賣文，而在于所賣的文是否危害民國的。否則正如米商也賣過米，黃包車夫也拉過任何客人一般，假如國家不否認我們在淪陷區的人民也尚有苟延殘喘的權利的話，我就如此苟延殘喘下來了，心中並不覺得愧怍。〈關於我〉，《蘇靑文集》(下)，上海書店出版社，1994. 446쪽.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²⁾ 그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볼 때, 그녀의 작품이 1940년대 당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류 문학사나 평론계에서는 1940년대 上海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장되었거나 저평가되었지만 당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던 蘇青의 문학세계를 그녀의 대표작 《結婚十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蘇青과 《結婚十年》

蘇青의 본명은 馮允莊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馮和儀라는 이름을 썼다가 다시 蘇青을 필명으로 하였다. 그녀의 부친 馮松雨는 更子年의 배상금³⁾ 지원을 받은 미국 콜롬비아대학 유학파로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上海 소재 한 은행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급서함으로써 집안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그녀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 동창인 李欽后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蘇青이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35년으로 잡지 《論語》에 〈產女〉라는 제목의 산문을 투고하면서부터였다. 이 작품은 후에 〈生男與育女〉라는 제목으로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張全之 등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개진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 張愛玲은 문학사가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張愛玲 열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蘇青은 여전히 문학사에서의 실종자로 남아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함락지구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여성문학이 날로 발전하면서 蘇青은 문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 張愛玲 연구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이 언급은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蘇青에 대한 평가를 잘 개괄한 평가이다. 張全之, 程亞麗, 〈蘇青與四十年代市民文化〉, 《德州學園學報》第17卷 第3期, 2001.3. 38쪽.

3) 1900년(更子年)에 일어난 義和團의 亂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8개국연합군이 北京을 공격하여, 청나라 조정이 이듬해 《辛丑條約》을 체결하도록 압박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국이 백은 4억 5천여 만 냥을 연리 4%로 39년에 걸쳐 배상하고, 세관수입 등으로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배상금을 통칭 “更子年 배상금”이라고 부른다. 이후 미국은 이 배상금을 중국에서 대학을 만들고 우수한 중국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中國歷史大辭典·清史卷編纂委員會 編, 《中國歷史大辭典—清史(下)》, 上海辭書出版社, 1992. 385~386쪽.

바뀌었다. 이후 194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는 1943년에 잡지 《宇宙風》에 《結婚十年》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당시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1948년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재판을 찍어낼 정도로 그 인기는 이어졌다. 그 인기는 당대 문단을 풍미했던 張愛玲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였다. 다음과 같은 張愛玲의 언급은 그것을 반증해준다.

순수하게 개인적 시각에서 볼 때에 나 역시 蘇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를 바랬고, 또한 그녀가 많이 써내기를 바랬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점을 알게 되기를 바랬다. 왜냐 하면 蘇靑 문장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바로 현대 문화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여류 작가를 꼭 구분을 지어서 평론을 해야 한다면 나는 冰心이나 白薇같은 작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蘇靑과 더불어 논의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⁴⁾

이 평가는 당시 문단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冰心이나 白薇를 제쳐두고 1940년대 上海의 문화수준과 蘇靑의 문장 수준을 동일시하고 있다. 더구나 1940년대 上海 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張愛玲의 평가라는 점에서 蘇靑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⁵⁾ 다른 작가에 대한 칭찬에 인색했던 張愛玲의 蘇靑에 대한 이러한 극찬은 물론 그들 간의 특수한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일종의 혐의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당시 蘇靑은 《天地》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고, 張愛玲은 이 잡지의 주요 투고자였다.⁶⁾ 이 잡지는 1943년 10월에 창간되어 1945년 6월에 중단된 잡지로서

4) 即使從純粹自私的觀點看來, 我也願意有蘇靑這麼一個人存在, 願意她多寫, 願意有許多人知道她的好處, 因為, 低估了蘇靑文章的价值, 就是低估了現代的文化水准。如果必須把女作者特別分作一欄來評論的話, 那麼, 把我同冰心、白薇她們來比較, 我實在不能引以為榮, 只有和蘇靑相提並論我是甘心情願的。張愛玲, 〈我看蘇靑〉, 《蘇靑文集》(下), 앞의 책 459쪽.

5) 蘇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적고 있는 〈我看蘇靑〉에서 張愛玲은 蘇靑의 문학 적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생계 문제 때문에 글을 쓰게 된 입장에서 대중들의 기호에 영향을 글의 쓰기가 쉬운 환경에서도 진정성 있고 본심이 우러나는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張愛玲, 〈我看蘇靑〉, 앞의 책, 460쪽.

6) 위에서 인용한 글 역시 《天地》에 실린 글이다.

張愛玲은 창간호부터 중간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11기부터는 張愛玲이 이 잡지의 표지디자인까지 할 정도였다.⁷⁾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상호간의 우호적 평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에 대한 중국 대륙에서의 문학사적 평가의 상이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張愛玲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로 문학사적 재조명이라는 이름 아래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蘇青의 경우에는 여전히 張愛玲이라는 이름에 가려 변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40년대 上海의 모던 분위기를 응축하는 이른바 ‘海派’의 대표 작가는 으레 張愛玲이 언급되기 일췌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정리되었다.⁸⁾ 하지만 蘇青의 작품 《結婚十年》은 그러한 문학사적 편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結婚十年》에서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보이는 주인공 蘇懷青의 결혼과 학교생활, 출산, 피난, 구직 및 이혼으로 이어지는 삶의 역정이 묘사되고 있다. 나아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여성이 어떻게 돈을 벌며 생활하며 자립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대 식구들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혼외연애의 미묘한 연애감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미세한 여성심리가 잘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1940년대 당시 중국 문단에서 蘇青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언급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생존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동안 가볍게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들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들 수 있다.⁹⁾ 실제로 蘇青이 창작에 임하는 데 있어서 내건 구호는 1940년대 당시의 시대적 요청인 ‘반봉건’이나 ‘반제’ 등의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창작을 통해 단 몇 푼이라도 버는 것이었고, 나아가 창작을 통해 자신의

7) 張 梅, 〈相見歡-張愛玲與蘇青的亂世情緣〉, 《名作欣賞》2008.6. 49쪽.

8) 문학사에서의 蘇青에 대한 이러한 ‘소외’현상은 이른바 ‘漢奸文學’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蘇青이 문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이 1930,40년대 문학 부문 정기간행물을 주름잡았던 陶亢德이고 또 그를 통해 대표적인 漢奸 周佛海나 陳公博과 교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종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劉維榮, 〈作家蘇青與大漢奸陳公博的“離奇”交往〉, 《檔案天地》2006年 03期 參考.

9) 張全之, 程亞麗, 〈蘇青與四十年代市民文化〉, 《德州學園學報》第17卷 第3期 39쪽.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結婚十年》에는 봉건과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작가의 의도적인 묘사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은 담담하게 묘사되고 있고, 그런 까닭에 그 묘사들은 독자들에게 보다 리얼하게 다가온다.¹¹⁾ 이를 통해 독자들은 중국 근대성의 문화적 모체로 일컬어진 上海의 도시 문화, 이른바 上海 모던의 또 다른 이면을 확인할 수 있다.¹²⁾

III. 남아선호사상과 전쟁의 야만성

중국현대문학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유명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反帝와 反封建이 작품의 주요 기조를 이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蘇靑의 《結婚十年》 역시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봉건의 문체나 전쟁의 양상들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품에 묘사되는 양상이 봉건의 폐해에 대한 질타나 전쟁을 일으킨 무리에 대한 증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공의 시선이나 묘사 등으로 담담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¹³⁾

봉건 유습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뿌리를 갖는 것이 바로 남아선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結婚十年》에서도 이 남아선호 사상은 주인공의 출산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10) 그녀는 당시 이혼한 여성으로서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 이혼의 사유 또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당시 그녀의 글 쓰기는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눈물어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1) 張家平은 蘇靑의 문학세계를 동시대 작가인 張愛玲과 비교한 글에서, 張愛玲은 ‘哀其不幸, 怒其不爭’의 입장이었다면 蘇靑은 ‘哀其不幸, 悲其無奈’라고 정리하였다. 張家平, 〈兩種觀照-張愛玲與蘇靑作品比較〉, 《上海師範大學學報》2001.1. 52쪽.

12) Lee, Leo Ou-Fan, Shanghai Modern Harvard, 1999.9. 27쪽.

13) 바로 이 점이 반제와 반봉건을 소리 높여 외쳐야만 주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국현대문학사에서 蘇靑과 그녀의 작품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덕을 잃은 것은 한 적이 없으니 며느리아이가 정말 아들을 낳으면 이름에 ‘德’자를 넣어서 ‘承德’라고 짓고 싶은데, 어떻겠소?”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承德, 承德라, 이름 정말 좋네요. 며느리아이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예요. 배가 저렇게 앞으로만 솟아나오고 허리가 굽지 않으니 뒤에서 보면 배가 나온 사람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올케는 남편 앞에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냉소를 지었다.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득의양양할지 훤히 보이네! 앞으로 황제 노릇을 하려고 들테니. 오빠, 오빠는 그럼 이제 태상황이 되겠네. 그럼 오빠의 마나님도 태후마마가 되고 말이야.” 남편은 부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더 숙였다.¹⁴⁾

첫째아이 출산을 위해 남편의 본가에 와서 온가족이 사랑채에 모여 한담을 나누는 장면이다. 이미 아들임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이름을 지어놓은 시아버지와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시어머니, 게다가 올케의 부추김까지, 시댁식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희망, 즉 대를 이어줄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는 희망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날마다 족발이니 삶은 오리니 붕어탕 같은 보양식을 주인공에게 제공한다.¹⁵⁾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아들도 생겼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¹⁶⁾라고 못을 박는 시아버지의 당부, 주인공마저도 ‘내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꼬마 서생처럼, 아빠인 賢처럼, 절대로 나 같은 딸이어서는 안된다’¹⁷⁾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결국 아들을 열망하는 시댁의 기대는 주인공의 딸 출산과 함께 일거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14) 賢의父親說：“我生平不曾做過缺德的事，如今懷青有了喜，養下來要是真的是個小子，我想他名字就叫做承德如何？”於是婆婆說：“承德！承德好極了！懷青一定養男孩，因為他的肚子完全凸在前面，頭是尖的，腰圍沒有粗，身子在后面看起來一些也不像大肚子。”杏英前賢撇撇嘴，冷笑着：“養個男小子，才得意呢！將來他做了皇帝，哥哥，你就是太上皇，你的少奶奶就是皇太后了。”賢不自然地笑了笑，抬眼向我瞧時，我却皺了皺眉毛直低下頭去。蘇青，《結婚十年》，瀋江出版社，桂林，1987. 38쪽.

15) 天天爲我準備吃，食跨筋，惋鴨，小鯽魚湯，蘇青，《結婚十年》，앞의 책, 39쪽.

16) “你以後還不快快用心呀，兒子也有了，可眞了不得！”蘇青，《結婚十年》，앞의 책, 39쪽.

17) 我的孩子應該是個男的，像小書生，像他的爸爸——賢，但是不像我。蘇青，《結婚十年》，앞의 책, 40쪽.

그 순간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기도 기운이 떨어졌는지 힘없이 울었다. 나는 속이 허한 기분이 들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몰래 엿들었다. 문 옆에 서있던 여자가 말했다. “딸도 괜찮아. 먼저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되지!”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내년에 남동생을 보면 되지 뭐.”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¹⁸⁾

주인공의 딸 출산은 축복받을 일이라는 커녕 마치 ‘부끄러운 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되어 버렸고, ‘내년에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으로 위안 받는 일이 되고 말았다.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할 시어머니는 산모방에 발길을 끊었다.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출산이 아이의 성별에 따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또 여성인 며느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어야 할 여성인 시어머니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봉건적 관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주변을 멸시를 받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 밖에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봉건적 관념이 대를 이어 이어진다는 점이다.

딸을 낳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딸이 외손녀를 낳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불쌍한 엄마, 평생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아왔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내 체면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며 만든 물건들인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맥빠진 표정으로 제사상에 놓는 것이 아닌가?¹⁹⁾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되는 것을 축하하여²⁰⁾ 주인공의 친정에서 온갖 선물을

18) 頓時全室中靜了下來，孩子也似乎哭不起勁了，我心中只覺得一陣空虛，不敢睜眼，估價慚愧着做了件錯事似的在偷聽旁人意見，有一個門口女人聲音說：“也好，先開花，後結子！”另一個聲音道：“明年准養個小弟弟。”婆婆似乎咳嗽了一聲，沒說話。蘇青，《結婚十年》，앞의 책，44~45쪽.

19) 生女兒真是件沒光彩的事，女兒生了外孫女兒又是一番沒光彩，我可怜母親一世碰到不如意的事情真是太多了，這番又何必勉強給我裝體面，費心費錢的弄了這許多東西來給這里人們懶洋洋地擺上把神桌呢？蘇青，《結婚十年》，앞의 책，57쪽.

20) 과거 전통 중국에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 한 달이 지나면 일가친척과 친지들이 산모를 위로하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사를 치렀는데, 이를 ‘만월을 지낸다(過滿

준비해서 보낸 것을 시댁 식구들이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다. 작가이자 주인공의 눈에 비친, 여자로서의 친정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 원하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살아온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주인공(작가)의 눈에 엄마와 자신, 그리고 딸로 이어지는 여성의 존재는 上海 모던의 상징인 화려한 불빛 아래 멋진 치장을 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七去之惡’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하는 봉건시대의 여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아선호 사상 못지않게 주인공을 괴롭혔던 것은 전쟁의 그늘이었다. 《結婚十年》에서 작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찾아다니더니 배와 기차마저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동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 거리 여기저기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루터로 가서 배만 보이면 앞 다투어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 바람에 물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밝혀 부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참혹한 상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다.²¹⁾

분가하여 上海에서 살고 있던 주인공 부부가 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의 본가로 돌아가기 위한 교통편을 확보하고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피난민들끼리 벌이는 아귀다툼 과정에서 ‘물속에 빠지고’, ‘밟혀서 부상을 당하는’ 등의 야만적이고도 참혹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작품에서는 여과없이 묘사되고 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서운 광경이었어. 이를 악물고 죽은 사람, 머리가 반쪽만 남은 사람, 사지가 이리저리 떨어져 나간 사람 등 참혹한 시체들이 많아서 시신을 찾으러 온 친척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고, 몸의 절반만 찾고 나머지 반쪽은 찾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 차에 짐을 가득 실은 사람이 어디 가서 부

月)고 하였다.

21) 賢到處奔波了几天，輪船火車都沒有定期，要結隊同行談何容易，有的人无家可歸都露宿在各條弄堂里，有些人索性宿到碼頭上去的，只要有船，便大家推着搶先擠上去，落水的也有，踏傷的也有，真是慘不忍聞。蘇靑，《結婚十年》，앞의 책，137쪽.

모의 시신을 찾을 것이며, 아녀자들은 또 어디 가서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 있겠어?”²²⁾

아직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 上海에 머물러 상황을 살피던 남편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만삭의 몸으로 집에 머물러 있던 주인공에게 전해주는 폭격당한 上海의 처참한 모습이다. 명분 없는 전쟁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전쟁의 참상, 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신에 대한 묘사는 그 명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전쟁의 참혹함은 주인공이 친신만고 끝에 피난을 온 남편의 본가가 있는 시골(N성)에도 여지없이 밀어닥쳤다.

우르릉 하는 비행기 소리가 지붕 바로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아기를 요람에 누이고 얼른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열두 대나 되는 비행기가 낮게 날고 있었다. 어쩌나 낮게 나는지 비행기의 로고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고, 바지랑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라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그 소리에 창문 유리가 덜컹거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나는 숨처럼 힘이 쭉 빠진 두 다리로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웅겁살로 걸어들었다. 아기는 요람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웨이웨이는 시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었다. 시아버지가 두 손으로 반백의 머리를 움켜쥐고 탄식했다. “내가 이제 겨우 오십을 넘겼는데 이렇게 비명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구나, 쉰은 멀리 上海에 있고, 겨우 손녀만 돌인데……”²³⁾

도시도 아닌 시골 마을에 낮게 비행하며 폭격을 퍼붓는 비행기를 통해 작가는 전

22) “那真是可怕得很哪，也有咬牙切齒的，也有半個腦殼給削去了的，四肢身軀都不全，親屬來認尸的有些已瞧不清眉目，即使領着了也是有了上身沒下截的，一大轎塌車全裝着担子的何處去拾父母遺骸，做妻子的何處去找丈夫的肢體呢？”蘇青，《結婚十年》，앞의 책，137~138쪽.

23) 隆隆的飛機聲音從屋頂上響過，我把小女兒放在搖籃里，自己跑到庭中觀看，數數共有十二支，飛低時圖徽分明，就是用竹竿也可以把它撥下來。正想間，只聽得天崩地裂的一聲，玻璃窗扇扇都跳動起來了，天花板上掉下一串串灰塵，我兩腿軟如棉花般一步步挨進起坐間，小女兒已在搖籃里睡熟了，簇簇伏在她祖母懷中，公公雙手捧着斑白的頭顱低嘆道：“想不到我活到五十幾歲了還要死于非命，賢又遠在上海，唉，兩個都是孫女……”蘇青，《結婚十年》，앞의 책，148~149쪽.

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대목은 비행기의 로고를 언급하면서도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폭격을 피하는 비행기의 로고는 적기와 아군기를 구분하는 표지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큰일 치르지 않고 안온하게 살아온 시아버지의 비명횡사를 걱정하게 하는 흉물일 뿐이다.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즉, 소설이나 영화를 막론하고 전쟁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적군과 아군이 존재하고 상호간에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이루어지며, 굳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아군은 용감무쌍하게 적진을 돌파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비열하고 무자비한 적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힘없는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폭탄을 쏟아 붓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십상이다. 나아가 온갖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무장한 아군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승리로써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이른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結婚十年》에서 작가가 그려내는 전쟁의 모습은 한 평범한 개인이 보기에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의 전개일 뿐이고,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후손 없이, 아니 정확히 말해 대를 이어줄 손자 없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두려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적군과 아군의 승패보다는 전쟁의 와중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모아져 있는 것이다.

마음이 초조해지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이어서 폭탄이 투하되었고, 비행기가 지붕 위를 뱅돌며 귀가 찢어질듯 굉음을 울리자 나는 금방이라도 호흡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멀어지면 다소 숨을 돌렸다. 그렇게 3,40분 동안 공포에 떨고 나자 비행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한참 뒤 해제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²⁴⁾

전쟁을 겪은, 특히 작품에서처럼 폭격을 경험한 인간은 그 이전의 인간과 같은 인간일 수 없다는 말처럼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나 후유증은 ‘금방이라도 호흡이 멈출 만큼’,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

24) 我心里也覺酸楚起來，倒沒有怪他重男輕女，只是很着急，仿佛畢命便在須臾。接着又投下几个炸彈，飛機只在屋頂上盤桓，聞其聲近時我是連呼吸都停止了，稍飛遠才透過口气來。這樣繼續到三四十分钟之久，飛機聲音才不見了，丟得好暢快。良久良久，始發出解除警報。蘇青，《結婚十年》，앞의 책，149쪽.

질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에게 들리는 ‘해제경보’는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나오는 신호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蘇靑의 《結婚十年》이 동시대를 살았던 독자들의 공감을 획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남아 선호와 관련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벌어졌을 모습과 생각들이 작품에 그려져 있고, 내일을 장담하기 힘든 절박한 전쟁 상황이 작품에서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 많은 작가들이 묘사했던 이른바 ‘上海 모던’은 작가에게 있어 일종의 판타지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40년대 蘇靑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일제에의 의도적 부역’이나 ‘매국행위’는 적어도 작품분석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없다.

IV. 결혼과 관련된 전통 풍속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상당수는 전통의 부정과 새로운 것의 추구에 그 주제가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破舊立新’의 구호가 말해주듯, 전통은 낡고 고루한 것으로 규정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치부되었고, 새로운 것은 사물이나 주의를 막론하고 환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작품들을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각 지방 고유의 독특한 전통문화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²⁵⁾ 그런 면에서 蘇靑의 《結婚十年》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浙江과 江蘇 지방의 결혼과 관련된 전통적 풍속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 예는 작품 주인공의 결혼 장면이 묘사되는 작품의 초반부에서 결혼할 때 신부가 꽃가마를 타게 된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꽃가마를 타는 풍습은 우리 마을 처녀들의 특권이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宋나라 康王이 진흙으로 된 말을 타고 강을 건너 우리 마을로 도망을 오게 되었는데, 金兀術이 뒤쫓아 오자 康王은 절박한 마음에 길가는 처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처녀는 康王을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격해온 兀術에게 이미 康

25) 물론 李劫人이나 沈從文 등의 작가들처럼 지방의 전통문화를 애잔하게 그려낸 예도 없지는 않지만, 그들의 작품은 평가에 있어서 예외 없이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작품들이 주목받고 재평가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왕이 저 멀리 도망쳤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康王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훗날 康王이 즉위하여 高宗이 되었는데, 일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처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처녀를 찾을 길이 없게 되자 N마을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에는 누구나 꽃가마를 타게 하라는 하교를 내린 것이다.²⁶⁾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꽃가마에 얽힌 전설이 소개되고 있다. 봉건시대에 가마는 권력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동시에 권력의 상징으로서, 일반 백성들은 타볼 꿈도 꾸지 못하는 일종의 로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봉건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약자인 여성이 결혼이라는 '중신대사'를 맞아 일생에 단 한번 탈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 꽃으로 치장까지 하는 특별한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쯤 궁금증을 가질 법 한데, 작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의 하나로서 역사적 사실에 덧붙여 설명해내고 있다.²⁷⁾

결혼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통풍속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다음의 몇 가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결혼식 당일의 모습이다.

남동생이 나를 안아 가마에 태워주었다. 풍습대로라면 나는 가마에 오르지 않겠다며 울고불고 해야 하고, 남동생이 그런 나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야 했다. 그러나 내가 발버둥을 치면 남동생이 힘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남동생도 억지로 나를 꽃가마에 태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남동생은 풍습에 따라 나를 안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마의 힘줄이 불거지도록 혈떡거리며 나를 안고 꽃가마 앞까지 갔다. 나는 얼른 내려 재빨리 꽃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구경꾼들과 하객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풍속대로라면 내가 스스로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동생이 나를 밀어 넣어야 이치에

26) 坐花轎是我鄉女兒的特權，據說從前宋康王泥馬渡江以後，就逃到我鄉某處地方，金兀術追了過來，康王急了，向路旁的一個姑娘求救。那個姑娘便叫他躲起來，自己却誑兀術說康王已逃向前方去了，因此救了康王一命。後來康王即位，便是高宗，想報此恩，可是找不到這位救他的姑娘，於是便降旨說凡N府姑娘出嫁，均得乘坐花轎。蘇靑，《結婚十年》， 앞의 책, 1쪽.

27) 閩南 지역에도 꽃가마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포맷은 대체로 같은 반면에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高宗을 구해준 여인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잡은 물고기를 잡는 통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위에 그물을 덮어서 金軍에게 잡히지 않게 해주었다는 내용이다. 溫欣蔡尤資, 〈新娘坐花轎的由來〉, <http://www.yxdl.com> 참고.

맞는 것이라고 했다.²⁸⁾

결혼식 당일에 식이 열리는 청년회 강당까지 타고 가야 하는 꽃가마에 오르는 과정에서 전해져 오는 풍속대로라면 신부의 남자 형제가 신부를 안고 꽃가마까지 가야하고, 꽃가마에 도착해서 신부는 가마에 타지 않겠다며 ‘울고불고’ 하는 저항의 자세나 최소한 부끄럼을 타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전해지는 풍속대로라면 말이다. 하지만 신부는 전통풍속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신부의 미덕’을 저버리고 ‘남동생이 힘들어 할까 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로 자기 발로 가마 안으로 뛰어들었고, 이 장면은 구경꾼들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전통풍속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다른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N성에는 딸을 출가시키고 난 뒤 3년 이내에는 딸을 친정집에 데리고 와 여름을 보내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왜 그런 예절법이 생겨났는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너무 더워서 여름에 병이 쉽게 나는데다가 날도 더운데 신혼부부가 동침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그 3년 뒤에는 왜 하지 않는걸까? 그건 아마도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²⁹⁾

결혼 3년 이내에 딸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정집에 데리고 와서 여름을 보내게 하는 일종의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시택에서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는 며느리의 경우 각종 격식에 매달려 있는데다가 온갖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특히 더운 여름철에 병이 나기가 쉬운 점을 고려하여, 여름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단으로부터 일종의 ‘휴가’를 주어 심신의 건강을 회

28) 弟弟便來抱我上轎了。據說那時我應該嗚嗚地哭，表示不願上轎，由弟弟把我硬抱進去。可是我沒有這樣做，因為那太冤枉了弟弟，他事實上並不會強迫我上轎嫁出去，那是真的。然而他還得循俗抱我，累得額上青筋暴漲，好容易喘着把我抱到轎前，我趕緊下來，走進轎子。那時只听得客人們都嘩笑起來，據說為的是我不該自己進轎，還該由他把我推了進去，才算合理。蘇青，《結婚十年》， 앞의 책, 3~4쪽.

29) 原來照N城的老派規矩，女兒出嫁後的三年中，總是接回嫁家來過夏的。理由我也不曉得，或許是夏天容易出毛病吧，新婚夫婦總熱絡些，同住在一起反而不大好。至於以後呢？以後往往是子女多了，離也離不開，因此只好作罷。蘇青，《結婚十年》， 앞의 책, 76쪽.

복하도록 배려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예절법’에 대해 작가는 건강을 배려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는 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식 양육 때문이라는 답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작가는 적어도 이 전통적 ‘예절법’에 대해서만큼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結婚十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이 조화된 방식으로 치러진 결혼식에 이어진 피로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온 집안에 석유등이 눈처럼 빛나는 가운데 결혼축하연이 한창 열리고 있었다.....나는 빨간 꽃이 수놓인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진주 장식이 달린 화관을 쓴 채, 남쪽을 향해 단정하게 앉았다.....나중에 계산해보니, 이 날 저녁 차려진 술상은 모두 백 개가 넘었고, 잔치에 온 하객도 1,2천명에 이르렀다.....내가 앉은 자리의 잔치음식 역시 남자 하객들 것과 같았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혼례 잔치의 풍습에 따르면, 신부는 젓가락을 들면 안 되는 것이다.³⁰⁾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의 본가에서 치러진 결혼 피로연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통과 현대적 방식이 어우러져 치러진 결혼식과는 다르게 피로연은 철저하게 전통적 방식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부는 결혼식 피로연에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화관을 쓴 채 참석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지고, 또 아무리 시장기를 느끼더라도 음식에 손을 댈 수 없는, 주인공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을 시중들고 있는 들러리들에 대한 묘사이다.

들러리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보살판다기보다는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상의 요리가 남으면 그만큼 그들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오래된 관습이다.³¹⁾

30) 前廳, 中廳, 以及后面正廳里的汽油灯照得雪雪亮, 喜筵已經擺好了 我換了套大紅綉花衫裙 那是旧式結婚的新娘禮服, 頭上戴着珠冠, 端然面南而坐 后来据他們統計, 這晚共擺百多桌酒, 到的賓客有一二千人 我坐的這席上的菜也与男賓一樣, 可是我不能吃, 新娘坐筵是照例不舉箸的. 蘇靑, 《結婚十年》, 앞의 책, 8쪽.

31) 伴娘們虎視眈眈地在旁監視着 与其說侍候, 不如說監視爲确 因爲那桌菜收下去統是

한창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들러리들이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것은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들러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남은 음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대는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함을 보이고 있다. 작품에서는 오래된 풍습으로 이른바 ‘鬧房’도 소개된다.

이어서 하객들이 몰려들어와 ‘鬧房’을 시작했다. 鬧房은 N성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소란스러울수록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고 했다. 鬧房은 주로 남자 하객들이 주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조를 이루고 우두머리도 뽑아 鬧房 총사령이라고 불렀다.……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오자 나는 깜짝 놀라 신랑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 걱정했다. 그런데 그는 내 시선을 외면한 채 미소 지으며 태연하게 혼자서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고, 나는 술 취한 남성들에게 빙 둘러 싸인 채 그들이 돌아가며 소리치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야 했다. 신부의 외국노래 한 곡 들읍시다. 춤 구경도 해야겠소. 그것도 싫으면 얼른 가서 신랑에게 뽀뽀나 하시오……³²⁾

첫날밤에 친구 또는 친척들이 신랑신부의 방에 몰려가서 신혼부부를 놀리면서 떠들썩하게 노는 것을 일컫는 鬧房의 풍습이 소개되고 있다. ‘鬧房’ 풍습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도 비교적 익숙한 내용³³⁾으로서 신혼부부를 놀리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신랑이 아닌 신부에 대한 짓궂은 장난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는 일종의 ‘이벤트’를 ‘특별한 날’을 빌어 벌이고자 하는 하객들의 바람이 이 풍습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신부, 즉 작품의 주인공 화

她們的好處，這也是老規矩。蘇青，《結婚十年》，앞의 책，8쪽.

32) 接着衆賓客蜂擁進來，實行“鬧房”。鬧房是N城的大禮，不可或缺，據說是“愈鬧愈發，不鬧不發”，“發”当然是指發財囉！鬧房以男客爲主，他們也有組織，推出一個爲首的人來，叫做鬧房總司令……他們一窠蜂似的進來了，我嚇了一跳，眼睛望着賢，心想他們不知將怎樣爲難我們哩！不料他倒若无其事地笑了笑，獨自倚着窗口站定了看，由着這批醉醺醺的野男人們把我團團圍定，一个个搶着提出无理的要求：我們要新娘唱一支外國歌！我們要新娘跳一支舞！你不答應，便要你跑過去同新郎親一個嘴！蘇青，《結婚十年》，앞의 책，9쪽.

33) 우리나라 특유의 혼인 풍속 중 하나로 ‘신방 엿보기’가 그것인데,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친척이나 이웃들이 신방을 엿보는 풍속이다.

자일 터인데, 그녀는 이 행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소란스러울수록 잘 산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웨이웨이는 단장이 끝날 때까지 손만 빨고 있었다. 웨이웨이의 손목에 찬 정교한 황금팔찌에는 방울 세 개가 달렸고, 오른쪽 팔에는 오색실이 감겨 있었다. 입 하절에 황마가 만들어준 것으로 올 한 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게 하는 액막이였다. 웨이웨이는 날이 갈수록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 어느 새 실이 아기의 부드러운 살에 꼭 끼여 아파 보였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웨이웨이 코 끝에 먹물을 발랐다. 그것도 예전부터 지켜오던 관례로서 외할머니 집에 처음 갈 때 ‘까마귀코’가 되어 가는 것이다.³⁴⁾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처음으로 친정나들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풍속이 소개되고 있다. 첫째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단오절에 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오색실을 손목에 묶어 잡귀를 쫓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른바 ‘長命累’이다.³⁵⁾ 이 장명루 만들기는 단오절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杭州의 오랜 풍속으로 알려진 ‘까마귀코’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까마귀코’ 풍속의 내용은 작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가에 가게 될 때, 목으로 코에 검은 점을 칠하고 가야하고, 돌아올 때에는 붉은 색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지방의 독특한 풍속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蘇靑의 붓끝에서 결혼과 관련된 지방 풍속은 ‘구시대의 유물’이나 ‘타파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로서 그려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대 도시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들지만 그 모습만 떠올려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34) 薇薇打扮完畢，張開小嘴只是啃自己拳頭。她的腕上戴着一副精巧響鈴鐺，也是金制的，每只鐺上有三個響鈴。右手腕上還縛着一圈五彩絡子，乃是立夏節上老黃媽給她套上的，說是薇薇腕上套了立夏繩今年便再炎熱些也不會中暑的了。薇薇胖得很快，如今繩圈已嵌在嫩肉里了，我看看着實肉痛，但卻沒有話說。最後，她們給她在鼻尖上搽了一大攤墨迹，這也是老規矩，初次到外婆家去應該是“烏鼻頭”的。蘇靑，《結婚十年》， 앞의 책, 79쪽.

35) 여기에서 오색은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흰색으로서 각각의 색은 동, 서, 남, 북과 중앙을 지키는 신을 상징한다.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 점이 1940년대 당시 上海에서 蘇靑의 《結婚十年》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갖는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봉건이니 전쟁이니 하는 거대 담론도 결국은 힘없고 나약한 인간들의 생존경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蘇靑 작품의 의미는 확연히 부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蘇靑의 《結婚十年》에는 시대의 큰 흐름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생존해 나갔던 평범한 민초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여인의 所懷가 가감 없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대의 선두에 서서 시대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았고, 알아듣기 힘든 말로 고담준론을 설파하지도 않았다. 《結婚十年》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크거나 날카롭지 않다. 또한 그녀가 작품에서 그려내고자 한 것은 독자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민의 일상생활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겪고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고단한 시대에 살아남아야만 하는 시민들의 처절하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와 함께 ‘모던’이라는 휘황찬란한 불빛 너머로 사라져 가는 전통 풍속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것이 바로 《結婚十年》이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靑의 《結婚十年》에는 20세기 전반기 중국을 짓눌렀던 봉건과 전쟁의 흔적들이 은은하게 남아 있다. 또한 ‘모던’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결혼과 관련된 소중한 풍속의 기록들이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上海’ 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張愛玲으로 대표되는 ‘모던’ 이미지나 피점령지 문학이 숙명적으로 받게 되는 평단의 평가 그 너머에 존재하는 蘇靑 작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1940년대 上海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여작가에 대해,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漢奸’이나 ‘일제에의 부역자’로까지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작품 활동을 포함한 그녀의 전체적인 활동상을 포괄적으로 검

도함으로써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蘇青文集》，上海書店出版社，1995.
- 蘇青，《結婚十年》，漓江出版社，桂林，1987.
- 李歐梵 著，《中國現代文學與現代性十講》，復旦大學出版社，2002.
- Lee, Leo Ou-Fan, Shanghai Modern Harvard, 1999.9.
- 후자오량 지음 김태성 옮김,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5.
- 중국 민정부·중국사회과학출판사 편저 김하림 옮김, 《중국인도 다시 읽는 중국사람 이야기》, 에디터, 1998.
- 中國歷史大辭典·清史卷編纂委員會 編, 《中國歷史大辭典—清史(下)》, 上海辭書出版社, 1992.
- 曾琦, 〈都市凡俗人生中的女性觀照—論蘇青的《結婚十年》〉, 《武漢科技大學學報》2004.3
- 夏軍英, 〈生活:爬着蚤子的袍—論蘇青《結婚十年》〉, 《淮北煤師院學報》2002.8
- 李奇志, 〈試論張愛玲, 蘇青的精神特徵〉, 《湖北師範學院學報》2002. 1
- 宮東紅, 〈走出婚姻的圍城—解讀蘇青小說〉, 《結婚十年》2006.9.
- 錢亞令, 〈蘇青小說的時代意義—解讀《結婚十年》《續結婚十年》〉, 《常州工業技術學院學報》1998.3
- 李 艷, 〈論蘇青《結婚十年》的女性悲劇〉, 《魅力中國》2009.10.
- 王艷芳, 〈生活的智慧與思想的智慧—蘇青, 張愛玲比較論〉, 《徐州師範大學學報》1999.9.
- 楊曉霜, 〈論張愛玲與蘇青創作的差異〉, 《時代文學》2009年 8期.
- 張 梅, 〈相見歡—張愛玲與蘇青的亂世情緣〉, 《名作欣賞》2008.6.
- 張家平, 〈兩種觀照—張愛玲與蘇青作品比較〉, 《上海師範大學學報》2001.1.
- 周建剛, 〈張愛玲, 蘇青創作中女性意識的對比〉, 《現代文學評論》2010.8.
- 張萍萍, 〈女人蘇青和女人的蘇青—簡論蘇青其人及其作品〉, 《女性文學》2001.4.
- 張全之, 程亞麗 〈蘇青與四十年代市民文化〉, 《德州學園學報》第17卷 第3期, 2001.3.
- 尹小艷, 〈女性文學的典範—蘇青《結婚十年》評析〉, 《語文學刊》2008.1.

丁曉萍,〈讀《結婚十年》〉,《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4年 4期.
周海霞,〈新世紀蘇青小說研究述評〉,《文教資料》2009年 6月.

【中文提要】

20世紀以來,上海是中國最大的,最摩登的城市。蘇青是上海淪陷時期名噪一時的女作家。蘇青一生中留下的小說不多,最爲大家所熟悉的,恐怕要算《結婚十年》了。這也是她對自己并不美滿的婚姻生活的真實描述,從中不難看出她潑辣的率真和對愛情生活經歷。《結婚十年》是出版後一紙風行,1944年到1948年間再版達18次,可以說是蘇青文學生涯的代表作。

本論文以《結婚十年》爲主要分析文本,要考察上海摩登的裏面。其具體的內容就是可以分爲如下的兩個方面。其一,封建的痕迹。其二,戰爭的傷痕。封建文化傳統和戰爭的傷痕構成了她實現自身價值的難以逾越的無形障礙。在宏大的歷史面前,通過《結婚十年》作家較成功地將人生最實際的日常生存轉化爲文學。同時,《結婚十年》的主要價值就是,在特定的歷史時期描寫了生活裏的民間風俗傳統。

【主題語】

上海,蘇青,結婚十年,張愛玲,四十年代

투고일: 2012. 10. 15 / 심사일: 2012.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2. 11. 10